

“해안 경관조명 설치·고하도 개발...해양관광 중심지로”

박홍률 목포시장 민선 6기 취임 3년

해상케이블카 내년 가동...부채 838억 상환 재정 건전성 높여
대양산단 38개 기업 입주 계약...일자리 창출·경제 활성화 총력

박홍률 목포시장은 지난 3년간 숨통을 조를 듯한 빚 부담을 덜어낸 점을 성과로 꼽았다.

목포시는 이 기간, 부채를 838억원이나 감았다. 민선 6기 출범 당시 3010억원에 달하던 목포시의 통합 부채 규모는 지난달 기준 2172억원으로 급감했다. 박 시장이 부채를 줄이기 위한 강도높은 재정 절감 조치를 밀어붙인 성과라는 게 시 안팎의 평가다.

박 시장은 최근 민선 6기 취임 3년을 맞은 간담회에서 “남은 1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보답하겠다”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대양산단 활성화에 공을 들여온 점도 그의 포부와 무관하지 않다.

박 시장은 대양산단 활성화를 역점 정책으로 추진해왔다. 침체의 늪에 빠진 지역 경제를 견인할 핵심 축이 될 수 있다는 판

단에서다. 도심과 근접해 근로자 정주여건이 어느 지역보다 우수하고 서해안고속도로·무안국제공항·목포신항 등 육·해·공을 연결하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춘 점 등을 내세우며 기업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결과를 가시적 성과로 이어졌다. 전체 분양대상 107만㎡ 중 36만㎡ 분양에 성공, 38개 기업들이 입주계약을 체결, 목포에 터를 잡겠다고 약속했다. 수산기자재·식품 제조·드론 등 6개 기업이 가동에 들어갔고 건강식품·에너지·물류유통 등 9개 기업도 공장 가동을 위한 건물 신축에 나선 상황이다.

산단이 활기를 띠면서 입주 문의와 분양 계약도 잇따르고 있다. 혁신도시와의 지리적 근접성을 내세워 에너지밸리 권역의 특수성을 누릴 수 있다는 강점도 기업 유치를 한몫을 했다.

박 시장은 “도심형 산단의 매력, 에너지 밸리권역 산단의 강점을 부각, 기업 유치

에 나선 것이 주효했다”고 자평했다. 유달산~고하도를 연결하는 해상케이블카 사업을 비롯, 지역경제를 이끌어갈 관광산업 육성에도 총력을 쏟겠다는 각오다.



박홍률 목포시장

당장, 해상케이블카 사업은 오는 8월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 시장은 내년 하반기, 해상케이블카가 운영에 들어가면 목포가 ‘서남해안 해양관광 중심도시’로 본격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시장은 해상케이블카 사업과 맞물려 ‘보고지나치는’ 관광지가 아닌, ‘머물며 쉬었다가’는 ‘서남해안 해양관광 중심도시 건설’에 총력을 쏟고 있다.

고하도 유원지를 개발하고 목포 해안가에 힐링 랜드와 전망대를 조성하는가 하면, 대반동 해안선을 따라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고하도 인근에 목화단지 조성사업



목포대교 야경

을 진행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남은 기간,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지난 3년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면서 소통을 강화, 원하는 정책에 주민 참여 예산을 늘려 집행한 점 등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는 점에서도.

박 시장은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다양화돼 지역민들과 소통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라며 “가까이 다가서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신뢰받는 행정으로 정책 만족도를 높이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평화광장 연인의 거리에 설치된 ‘러브게이트’



외달도에 조성된 하트모양의 대형 해수풀장. <목포시 제공>

외달도 해수풀장·해수욕장 개장

목포 외달도 해수풀장과 해수욕장이 8일 개장, 다음달 20일까지 44일간 피서객을 맞는다.

외달도는 최근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2017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섬 33선’ 중 지진 심신을 재충전하며 휴양할 수 있는 ‘섬 섬’에 꼽혔다. 섬 명칭대로 ‘외로이 달빛을 벗 삼아 걷기 좋은 섬’이라는 입소문이 나면서 관광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외달도에는 썰물에도 바닷물을 끌어들이 해수욕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한 유아

풀장, 대형 성인풀장(3개)을 갖는다. 피서객들을 위해 해변원두막, 그늘막, 야영장 등 편의시설도 마련했다. 특히 한옥 민박에서 머무르며 창으로 스며드는 달빛을 이불삼아 보내는 여름밤은 잊지 못할 추억을 안겨준다는 게 목포시측 설명이다.

목포시는 개장에 맞춰 대형 그늘막을 정비하고 해수공급 시설 및 샤워장 등 각종 시설을 점검하는 한편, 주말 피서객들을 위한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를 마련해놓았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 상징 관광기념품 공모 선영훈씨 ‘세발낙지종’ 대상



목포를 알릴 대표적 관광상품을 찾아라. 목포시가 최근 지역을 상징하는 관광기념품에 대한 공모 결과, 진주 출신의 선영훈씨가 출품한 ‘세발낙지종’<사진>이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세발낙지 종은 대표 특산물인 세발낙지를 형상화한 종으로, 지역 특성을 참신한 아이디어로 상품화하면서 대중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목포 깃바위를 형상화한 ‘깃바위 석고방향제’는 금상을 수상했다. 은상은 ‘목포 9미(미) 수저받침세트’, ‘깃바위, 목화밭 시계’가 각각 선정됐다. 이외 ‘깃바위 스마트폰 거치대’, ‘LED 무드등’과 ‘평화순수건’, ‘고하도 목화디퓨저’ 등은 동상 수상작에 뽑혔다. 대상 수상작은 300만원, 금상은 200만 등을 받는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10~12월 집중된 문화예술행사 분산 개최 필요

지난해 목포에서 열린 문화예술행사가 대부분 10~12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민들을 위한 시기별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문화예술회관과 시민문화체육센터, 문학관이 진행한 문화예술행사의 전시·공연 관람객을 집계·분석한 결과, 지난해 30만명이 관람, 대관료 및 사용자 수입으로 1억4532만원을 벌어들였다.

특히 문화예술회관 내 전시관의 경우 연간 관람객 10만 205명 중 10~12월에만 절반(54%)이 넘는 5만4073명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관료 수입은 11월(425만원)이 가장 많았다. 이 기간 지역민들의 발길이 집중되는 문화예술행사가 많았다는 해석이 가능한 만큼 시기별로 분산해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예술회관 내 공연장에서도 총 131회의 공연(관람객 3만7255명)이 펼쳐졌지만 10~12월 공연이 많았다. 11월에만 18차례의 공연이 펼쳐져 7200명의 관람객이 문화예술회관을 찾았지만 3월에는



지난해 목포 문화예술시설을 찾은 관람객은 30만명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문화예술회관 특별전시실 내 작품을 둘러보는 시민들. <목포시 제공>

단 한 차례의 공연이 진행되는 등 월별 차이가 확연했다.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는 1200석의 대공연장과 400석 소공연장 등으로 지난해 217회의 공연(관람객 9750만원)이 열리는 등 가장 공연이 활발하게 진행됐다.

12월에는 33차례의 공연을 보기 위해 1만6821명의 관람객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문학관은 지난해 2712명(입장료 수입 117만원)만 찾아 활성화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2017년 필리핀 주니어 체험 영어 캠프

영어 캠프

모집 안내

- 캠프기간: 2017년 7월 30일(일) ~ 8월 26일(토)
- 모집연령: 초등학교 3학년~고등학교 1학년
- 캠프장소: 마닐라 알라방 리조트 전용 동

- 24시간 상주 현지 담임 선생님
- 맞춤형 멘토엔 수업, 생활 영어 체험, 현장 영어 공부
- 다양한 노하우를 가진 전문 영어 캠프 선생님
- 독특하고 다양한 액티비티

상담 문의

070.8286.8726

epoweredu

블로그 : http://blog.daum.net/e-power

방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광주, 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유시용,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